

사람의
숲에서

사람이
그립다

김학송시집

연변인민출판사

김학송시집

사람의
숲에서
사랑이
그립다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장해연

책임교정: 김홍화

图书在版编目(CIP)数据

人丛中渴望人情/金学松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6.6 ISBN 7-80698-739-8

I. 人... II. 金... III. 诗歌-作品集-中国-当代
-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2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6)第066224号

人丛中渴望人情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印刷: 延边星月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6 印张: 9.5 字数: 225千字

标准书号: ISBN 7-80698-739-8 / I·99 (民文)

版次: 2006年6月第1版

2006年6月第1次印刷

印数: 1—500册

定价: 18.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김학송략력

중국 길림성 도문시 곡수촌
출생.

장춘야금지질학교 지질학과
를 전공, 연변대학 작가반 졸
업.

해내외에서 《20세기 마지막
밤》 등 시집 20여부 출간.

일부 시는 영역되어 《세계
시인선집》에 수록되었음.

아시아시인대회 중국측대표
로 참석하였음.

수필 《태산에 오르며》 등이
중학교교과서에 실림.

현재 연변가무단 전속작가,
연변시조시인협회 사무국장.

원로시인 김광림선생님과 함께



서울 아시아시인대회에서 김철, 한춘섭, 리상각 시백님을 모시고



1993년 원로시인 구상선생님과 함께
(구상선생님자택 서재앞)



김관웅교수와 함께 산에 올라

시대에 대한 깊은 사색과 고뇌가 담긴 시집

중공연변주위 선전부 부부장, 수필가 **채영춘**

자고로 문학의 중심에 시가 서있었다. 시인은 미래에 대한 예언자이며 해당시대 민중의 삶의 증언자요 대변인이다. 한수의 좋은 시는 천추에 남아 인류를 고무하는 마력을 갖는다. 앞으로 인류가 존재하고 인류의 정서가 존재하는 한 시는 영존할 것이다.

시장경제시대에 시인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시를 써야 하는가? 김학송시인의 시고를 읽으면서 우리 시단의 밝은 앞날이 전망되어 흐뭇한 마음을 금할 길 없었다. 우선 민중의 심장과 시인의 심장이 함께 뛰는 소리가 담겨있음이 반가웠다. 김시인의 시에는 민중의 숨결이 담겨있다. 인류와 우리 시대에 대한 깊은 사색과 고뇌가 스며있다.

김학송시인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2005 초겨울 연길에서

중국조선족시문학의 새로운 리정비

연변조선족문화발전추진회 회장, 문학평론가 **조성일**

김학송시인의 시집원고를 읽으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적지 않은 시편들이 시공을 뛰어넘는 예술의 영원성을 지니고있음을 보아낼수 있다. 참 오래만에 시다운 참시를 대할수 있어 많이 기뻐다.

또한 그의 시는 주제선택과 예술기법, 언어사용에 이르기까지 공감대를 극대화시켜 넓고 강한 울림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고있다. 이 시집에 실린 《겨울의 또 다른 풍경》, 《강에는 거루배 한척이》, 《안개》, 《하늘에게》, 《무소의 뿔처럼》, 《태풍의 눈》, 《밤의 고독》, 《밀회》 등과 같은 시편들은 서정시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수작이며 온 인류에게 바치는 감동의 메시지라고 보아진다. 우리 연변시인에 의해 이런 뛰어난 시가 창작되었다는게 또한 자랑스럽다.

중국조선족시단의 리정비적시집의 출간을 축하한다.

2005. 11. 10

축하의 글

연변대학 박사생지도교수, 문학평론가 **김관웅**

김학송은 새 중국 창건이후 중국조선족이 낳은 뛰어난 시인이다.

그의 시는 한국의 유명한 문학평론가 림현영선생의 평가처럼 조선족시단에서는 아마도 최첨단을 달리고있음이 분명하다.

김학송의 시는 물위에 피어난련꽃처럼 천생려질로 읽은이들에게 자연스런 미적감수를 주고있다. 하기에 수박겉핥기로 서양이나 중국의 선봉파시들을 모방한 우리 시단의 일부 얼뜨기(선봉파)시인들의 뭉뚱시와는 달리 아주 평이하게 독자들에게 다가온다. 토끼꼬리처럼 짧지만 깊은 밤중에 산사(山寺)에서 들려오는 범종소리처럼 긴 여운을 남기고 시내물처럼 얕은것 같지만 바다같은 깊이를 가지고있는 신운(神韻)과 함축성과 소박의 미에 김학송시의 성공의 오묘가 있다고 할수 있다. 초감성의 펜으로 그려낸 그림같이 아름다운 그의 시는 중국조선족, 나아가 전 민족의 소중한 문학적재부로 되기도 한다.

김시인은 우리 시대에 드물게 웅근 령혼으로 시를 쓰는 시인이다. 하기에 그의 시는 독자들을 감동

시킨다. 미려한 감성과 웅혼한 시정이 막을수 없는 힘으로 읽는이의 가슴에 젖어든다. 기교를 부려 꾸며낸 비닐꽃 같은 시, 무병신음의 시, 민중의 고초와 인류의 고뇌를 외면한 온갖 가짜시들이 란무하는 와중에 김시인의 존재는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가?

오직 올곧은 작가정신과 정직한 실력으로 살아가는 김학송시인의 시집 《사람의 숲에서 사람이 그림다》의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2005. 11. 15 연길에서

나의 시론

—머리말을 대신하여

원커니 나의 시여

령혼의 뜰에 피여난
싱싱한 풀꽃이기를

하늘의 강가에서 하느작이는
꿈같은 언어의 은실이기를...

김학송

차 례

시대에 대한 깊은 사색과 고뇌가 담긴 시집.....	1
중국조선족시문학의 새로운 리정비	2
축하의 글	3
나의 시론	5

제1부 인생무상

강에는 거루배 한척이	3
안개	4
태풍의 눈	5
우주의 섭리	6
세상살이 어려워라	7
엄마와 시래기	8
갈대	10
세태	11
무소의 뿔처럼	12
친구와	13
무제 1	14
꿈꾸는 새	15
밤의 고독	16
새해	17
신년 유감	18
산은 산이다 1	19
산은 산이다 2	20

첫눈	21
우리또래 1	22
우리또래 2	24
우리또래 3	25
우리또래 4	26
무에(无碍).....	27
추억의 지붕아래 나란히 서서	28
어떤 사람	29
아침	30
해조음	31
그물	32
5억년후의 지구	33
진리 1	34
인생	35
조약들	36
물은 물이다	37
새 1	38
살구꽃	39
천안문광장을 다시 거닐며	40
산행일기 1	41
산행일기 2	42
산행일기 3	43
시내물	44
아픈 날의 일기	45
두루미	46
나의 앨범	47
겨울손님	48
매아리(시조)	49

바람과 나	50
굴뚝	51
낚시질	52
생각이 익어 포도주가 되고	53
고독	54
들의 얼굴	55
바다와의 섹스	56
바다와 너인	57

제2부 어둠에 던진 투창

사람이 그림다	61
20세기 마지막 밤 1	62
문명의 최후만찬	63
고기와 그물	64
예감의 새 1	65
예감의 새 2	66
예감의 새 3	67
예감의 새 4	68
예감의 새 5	69
별집과 아파트	70
어떤 고향 1	71
새 2	72
새 3	73
새의 추락	74
겨울의 또 다른 풍경	76
욕실	78
신 귀거래사	80
오솔길	81

도시인	83
빼꾸기아빠	84
무인촌	86
나의 실락원	87
무제 2	88
어떤 세상	89
어떤 바람 부는 날 1	90
어떤 바람 부는 날 2	91
어떤 바람 부는 날 3	92
취옹일기	93
무의미	94
세대 1	95
밤	96
시대마다 거시기가	97
빈집	98
무제 3	99
가을녀신앞에 무릎을 꿇고	100
도시이야기	101
인생	102
봄이 떠나가고있다 1	103
봄이 떠나가고있다 2	104
청소부	105
님의 포전엔 잡초만 무성하고	106
20세기 마지막 밤 2	107
뿌리없는 나무들이	108
문화대혁명 1	109
문화대혁명 2	110
문화대혁명 3	111

제3부 다시 만나도 그리운 사람

하늘에게	115
보리밭런에	117
사랑 1	118
가을앞에	119
처음부터 그렇게	120
눈이 내립니다	121
님이 있는 풍경	122
순애보	123
봄날의 소망	124
우리의 생애에 여름은 간다	125
마음의 무덤	126
사랑에게	127
첫사랑 련인에게	129
눈물의 추억	130
첫사랑 련인과의 해후	131
보이잖는 섬	132
불면의 밤	133
내가 너와 함께 산다면	134
그리워하며 살자	136
우리만의 동화	138
첫눈은 그리움처럼 깊어가고	139
눈속의 동화	140
가을남자	141
사나이의 꿈	142
은하의 풀밭	144
묵시록	145
다시 만나도 그리운 사람	146

해바라기런가	147
겨울밤의 풍경	149
밀회	150
오춘기는 아름다와	151
사랑은 아픔이다	152
현대식련에	153
리혼하기 어려운 리유	154
밤비	155
단풍	157
진달래 1	158
다시 너에게	159

제4부 나의 귀거래사

박녕쿨 1	163
무궁화	164
아리랑	165
향수	166
두메산골	167
호미	168
드레박	169
완두밥	170
호박꽃	171
박녕쿨 2	172
파리	173
막걸리	174
메밀밭풍경	175
도리깨	176
나의 귀거래사 1	177